

연구계획서 감점요인 검토 리포트

《반드시 선정되는 연구계획서 쓰기》 집필 프레임 기반 · AI가 6축 기준으로 전수 점검하고, 사람이 읽어 판단했습니다

과제명 중장년 1인 가구의 디지털 돌봄 수용에 관한 연구 (가상 예시)

사업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가정 · 1년 · 2,000만 원

판정 기준 인문사회 개인연구 통례적 평가 골격 (독창성 30 · 계획의 우수성 50 · 기여도 20)

제출 자료 계획서 초안 12쪽 · 심사평 없음 (제출 전 단계)

리포트 분량 4쪽 · 연구계획서 종류와 감점 항목 수에 따라 3~5쪽

1. 예상 점수 판정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현재	수정 후	판정
연구의 창의성 (30)	연구주제의 창의성 (15)	12	13	양호
	연구방법의 적절성 (15)	8	13	치명
연구 계획의 우수성 (50)	계획의 타당성 (20)	14	17	보완
	구체성·실행가능성 (30)	16	25	보완
학문 발전 기여도 (20)		15	16	양호
합계 (100)		약 65	약 84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사업은 지원자들끼리 순위를 다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65점 안팎은 당락의 경계보다 아래 — 솔직하게는 탈락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입니다.

다만 이 계획서는 **주제가 약해서 이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년 1인 가구와 디지털 돌봄의 교차점은 정책 수요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주제입니다. 점수를 깎는 것은 세 가지 — 연구 방법 서술의 빈칸, "왜 지금 이 연구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서론, 그리고 방법과 따로 노는 예산·일정입니다. 셋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고,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2. 왜 이 점수인가 — 핵심 원인 3가지

원인 ① 연구 방법에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점 30점 구간의 감점)

계획서 5쪽 · 연구 방법 전문

본 연구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돌봄 수용의 맥락적 요인을 도출한다.

방법 항목이 두 문장으로 끝납니다. 심사위원은 이 문장 앞에서 곧바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 몇 명을, 어디서 모집해서, 몇 회, 회당 몇 분 면담하고, 무엇으로 분석하는가. 이 곱셈이 계획서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심사위원은 이 문서를 '연구계획'이 아니라 '연구 희망'으로 분류합니다. 한번 그렇게 분류되면 뒤의 좋은 내용도 닫힌 마음으로 읽힙니다.

원인 ② 서론이 "이 분야가 중요하다"에서 끝납니다 (배점 20점 구간의 감점)

계획서 2쪽 · 현재 문장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중장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디지털 돌봄 수용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문단은 **분야가 중요하다는 말과, 그래서 연구하겠다는 말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서론에서 찾는 것은 분야의 중요성이 아니라 **빈칸의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무엇을 밝혔고, 무엇이 아직 안 밝혀졌으며, 그 미해결 지점을 이 연구가 어떻게 메우는가. 이 세 문장이 없으면 "따라서"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서의 선행연구 검토는 8편을 인용하지만 전부 *나열*입니다. 8편 중 어느 것도 서로 충돌하거나 미완인 채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선행연구가 모두 옳고 완전하다면, 새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사라집니다.

원인 ③ 예산과 일정이 방법과 따로 놓입니다 (배점 30점 구간의 감점 — 회수 폭이 가장 큼)

계획서 8쪽 · 연차별 추진 일정

1년차 상반기 — 문헌 고찰 및 면담 실시 | 1년차 하반기 — 분석 및 논문 작성

한 칸에 두 개의 다른 작업이 묶여 있고, 그 칸이 끝났을 때 무엇이 손에 남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일정표를 **진도 점검표가 아니라 산출물 목록**으로 읽습니다.

더 걸리는 것은 앞뒤 대조입니다. 예산에는 **면담 사례비 24인분**이 잡혀 있는데, 5쪽 방법 서술에는 면담 인원이 아예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두 쪽을 나란히 놓으면 계획서가 스스로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건 점수를 몇 점 깎는 문제라기보다 **"이 사람은 자기 계획서를 끝까지 읽어봤는가"**라는 인상의 문제입니다.

3.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가

고치기 ① 방법 서술을 곱셈이 완성되는 문장으로

BEFORE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수행한다.

AFTER

만 50~64세 1인 가구 **24명**(성별·거주형태 균형 배분)을 ○○구 복지관 3곳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서 모집해, **1인 2회·회당 60분** 반구조화 면담을 진행한다. 축어록은 NVivo 14로 코딩하며, Braun & Clarke(2006)의 주제분석 6단계를 따른다. 코딩 신뢰도는 연구자 2인의 **독립 코딩 후 일치도($\kappa \geq .80$)**로 확보한다.

바뀐 것은 정보량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입니다. 24명·2회·60분·NVivo· $\kappa \geq .80$ — 심사위원이 각 숫자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점수가 됩니다.

고치기 ② 서론에 빈칸을 만들어 넣기

추가할 세 문장

선행연구는 노인 세대의 디지털 돌봄 수용을 다뤄 왔으나(김○○, 2021; 이○○, 2023), 대상은 대부분 **65세 이상·가족 동거** 집단이었다. 중장년 1인 가구는 돌봄 필요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동시에 가족 완충이 없는 **이중 사각지대**이지만, 이 집단을 독립 대상으로 삼은 국내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워 정책 설계의 전 단계 근거를 제공한다.

"중요하다 → 따라서 연구한다"가 "**이만큼 밝혀졌다 → 여기가 비었다 → 그래서 이 연구다**"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주제인데 필요성의 근거가 문서 안에서 완결됩니다.

고치기 ③ 일정을 산출물로, 예산을 방법과 1:1로

BEFORE

1년차 상반기 — 문헌 고찰 및 면담 실시 / 1년차 하반기 — 분석 및 논문 작성

AFTER

1~2개월 선행연구 매트릭스 완성(산출물: 문헌 검토표 8편) · **3~5개월** 1차 면담 24명 완료(산출물: 축어록 24건) · **6~7개월** 1차 코딩 및 중간 주제 도출(산출물: 코드북 v1) · **8~10개월** 2차 면담 및 확인(산출물: 축어록 24건·코드북 v2) · **11~12개월** 논문 초고 1편 투고

예산은 이 표에 붙이면 됩니다. 면담 사례비 24인분은 3~5개월 칸에, 전사 용역비는 6~7개월 칸에 대응시키면 **모든 금액이 방법 서술의 어느 문장에서 나왔는지 추적 가능**해집니다. 심사위원이 예산표를 볼 때 확인하려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4. 마감까지의 수정 순서

남은 기간이 짧다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만 하셔도 됩니다. 점수 회수 효율이 높은 순입니다.

1순위	방법 서술 전면 재작성 (5쪽) 표본 수·모집처·면담 횟수·분석 도구·신뢰도 확보 방법을 문장 안에 넣습니다. 반나절이면 됩니다.	+5점
2순위	구체성·실행가능성 보강 (6~8쪽) 연차별 일정표에 산출물을 붙이고, 예산 항목과 방법을 1:1로 대응시킵니다.	+9점
3순위	서론에 연구 공백 세 문장 삽입 (2쪽) 위 문안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30분 작업입니다.	+3점
4순위	선행연구를 나열에서 대립으로 (3~4쪽) 8편을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남겼는가"로 재배열합니다.	+2점
하지 말 것	주제를 바꾸지 마세요 주제는 이 계획서에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남은 기간에 주제를 흔들면 나머지가 함께 무너집니다.	—

이 리포트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AI가 계획서 전문을 6축 기준으로 훑어 감점 후보를 빠짐없이 모으고, 사람이 그 목록을 읽어 무엇이 실제 감점이고 무엇이 무해한지 판단했습니다. 점수 추정과 우선순위, 그리고 "주제를 바꾸지 마세요" 같은 판단은 사람이 내린 것입니다.

본 샘플의 점수는 인문사회 개인연구의 통례적 평가 골격에 따른 추정이며, 실제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리포트의 기준

《반드시 선정되는 연구계획서 쓰기》 272페이지에 정리된 **6축 집필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감점 항목의 정의, 배점 구간 해석, 수정 우선순위를 문서화된 기준으로 고정해 두었기 때문에, **같은 계획서라면 누가 검토하든 같은 판정이 나옵니다.**

그 기준은 받은 그랜트의 합계가 아니라, 받은 만큼이나 떨어졌던 모든 신청서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이 통과했는지보다 무엇이 왜 걸렸는지가 훨씬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고칠 곳을 알았는데 문장이 안 나온다면

이 리포트는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단계인 **저자 1:1 컨설팅 50분**은 책을 쓴 사람이 직접 봅니다 — 위 수정 항목을 화면을 함께 보며 선생님 원고의 실제 문장으로 바꾸고, 끝나면 수정 지시 노트가 문서로 남습니다. 2주 안에 고친 원고를 한 번 더 봐 드리며, 이 검토를 받으셨다면 검토 금액만큼 빼 드립니다.

문의 — arche.strategy@gmail.com